

## 복지시설 양성화 앞으로 4개월... 불교계는?

# 대책없이 발만 '동동'

### 44곳중 39곳 기준 까다로워 '전환준비' 못해

#### 대안은 '그룹홈'... 성공여부 '글썩'

경기도 안성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사찰 골암사(주지 보덕). 25년간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다. 골암사를 창건하기 전인 40년 전부터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노스님은 '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다. 아이들만 열심히 기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인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시한인 7월 31일 이전에 문을 닫을 생각이다. 스님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했다.



7월 31일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를 앞두고 뿔뿔히 헤어질 위기에 있는 의정부 쌍암사 가족들.

하지만 지자체는 복지시설로 인가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도 총원해야 하고,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음에 갈 곳이 없었을 때, 3년 전 불이 나서 스님과 아이들이 모두 죽을 뻔 했을 때도 스님은 깨끗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다. 사람을 쓰고 건물을 보수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의정부 쌍암사(주지 증산). 수락산 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한 법당과 11명의 아이들이 기거하는 방사는 비닐과 슬레이트로 덮여 간신히 비바람을 피하고 있다. 증산 스님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20여년간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곳도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다. 스님은 양성화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 관청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갑자기 '아동 한 명당 3명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사찰 밑 군사보호구역 30평 건물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의정부 시장에 사정할 참이다. 그마저 안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미인가 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시한으로 정한 7월 31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 44개 미인가 시설중

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복지시설 수용기준에 적합한 아이들, 즉 법적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경우 대규모 인가시설로 보내면 되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있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생활하는 대부부의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44개의 불교계 시설 가운데 30인 이하의 시설이 33곳이나 되는 불교계 소규모 시설에서 가장 적합한 시도할 수 있는 '그룹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룹홈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이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다. 그룹홈은 시설장 외에 관리자 1명만 두면 되고, 지자체나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규모 미인가 시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인 이상의 법인 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의 분원으로 신고한 뒤 부대사업으로, 10~30인 10인 미만으로 나누어 소규모시설인 그룹홈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또 5인미만은 가정위탁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제도인 만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생소하고,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윤남선 과장은 "양성화가 어려운 불교계 시설들에는 그룹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차별이 없는 주택을 마련한 뒤 가장 기본적인 시설설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광진 기자

## 군종특별교구법 "통과"

### 조계종 166회 임시총회, 성보보존법도 개정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이 제정되고 '성보보존법'이 개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66회 임시총회총회를 열고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과 '성보보존법' 개정안, 호법부장 인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출가연령 상향선과 학력 폐지를 빼제한 '교육법 개정안'과 비구니부신설 등을 포함한 3가지 '종헌 개정의 건', '사찰사물관리법' 등 7개 중법 개정의 건은 차기회로 이월됐다. 총회에서는 또 월주·정무·월운·정관·성수·명선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천했으며, 법경·보경·상운 스님을 종헌특별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초격 스님을 사찰사물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로, 성지 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총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한편 총회는 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총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및 영유권 분쟁 등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진실로 참회해야 한다"며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은 국가간, 민족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인류 공영을 저해하는 망령된 조례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 · 14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비구니원로회의 구성된다

###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예우' 차원·비종헌기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비구니 원로회의를 구성한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3일 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총회의 공식안건으로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원로회의의 구성 배경에는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최고 법계인 '명사(明師·비구는 대승사)' 품수와 같은 상징적 예우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종헌 중법상의 기구가 아닌 자체기구 성격이지만 종헌에 명시된 2부 승가의 한 축으로 비구니 승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 문종의 존경받는 어른스님을 예우함으로써 전국비구니회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구니 원로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회원 가운데 법랍 50세, 세랍 75세 이상의 수행부덕을 겸비한 스님으로 비구니 문종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10년. 원로회의는 9-15인의 위원회 형식이며,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또, 역할을 '전국비구니회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회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로 정해 실질적 권한보다는 비구니 승단의 장로회의 기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종 대표 등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회에는 △회칙개정 △제7대 임원인준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임정발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 포럼 개최(10월) 승인 △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 알림

###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컫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참가신청: 3월 21일~5월 10일
- 주최: 현대불교신문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족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공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역사인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정원: 선착순 40명
- 장소: 하와이 무왕사 문화원
- 협찬: (재)보덕학회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현산 스님 / 4월 2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새끼·가마니·짚신 등 모양은 다르지만  
깊이 입장에서 보면 다 같죠  
짚: (空)  
그림: 조태호  
고우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중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전승: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www.chanduk.com 인클홈페이지: 찬덕연등  
e-mail: chanduk21@hanmail.net 인클홈페이지: 찬덕연등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